



충주 곁은 고비

"충주 곁은 고비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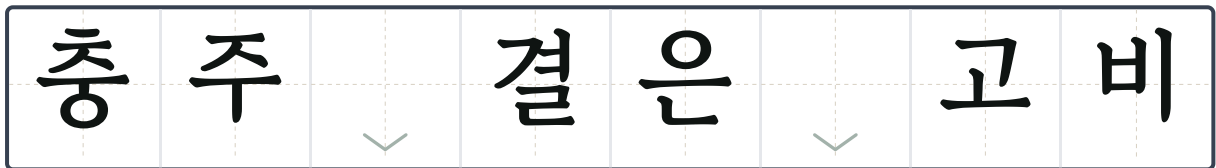
뜻: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에 쓰는 종이를 태우는 게 아깝다고 기름을 발라 두고두고 썼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, 아주 심한 구두쇠를 놀릴 때 써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인색 · 이기심 · 구두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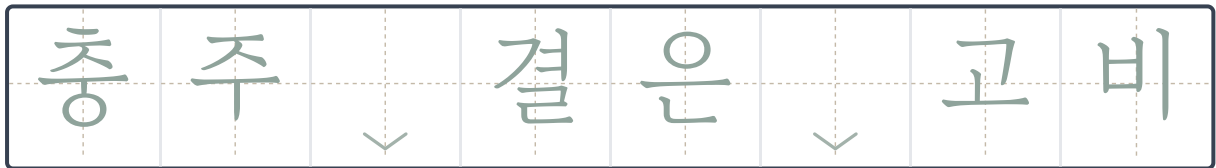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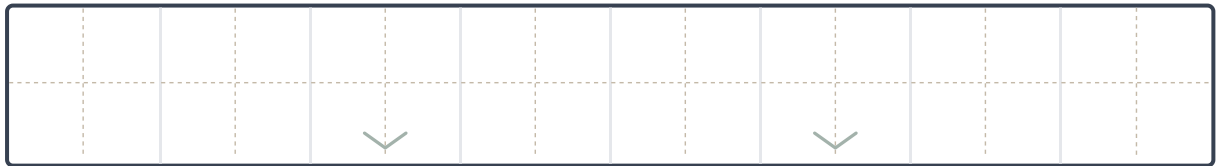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,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*ㅈ] [ㅊㅇ] [ㅊㅂ]

웹에서 보기

